



낙엽은 젖어도 마음엔 佛性이 무성 11월 10일 동안거 입재를 앞두고 고창 선운사 참당선원에 두 스님이 방부를 들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님들이 저 씨리문 안에 들고 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감나무에는 까치밥 대신 새 손이 뜬다. "스님, 이번 안거도 무탈하게 응행정진하세요." 조동섭 기자

# “하수가 고수를 판단할 수 있나?”

### 첫 대중안거 맞는 선운사 참당선원장 을광 스님

“누가 선지식인지(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다른 이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넘게 선방에서 화두만을 참구해 온 고창 선운사 참당선원장 을광 스님(사진)의 일갈은 은산철벽이라도 뚫을 기세였다. 스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달았다는 사람은 늘 있어왔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선지식은 아니다. 속세에서는 ‘선지식이 있네, 없네’ 해도 산중 선방에는 대중이 모르는 깨진 수행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달음은 번뇌 망상을 끊어낸 것이지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을광 스님이 11명의 수좌들과 함께 한 절을 지날 선운사 참당선원은 도솔산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다. 등산객도 발길이 드문 외지라 수행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선원이 들어선 참당암은 선운사 암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백제 위덕왕 28년(581) 의운 스님이 창건해 참당사 또는 대참사(大禪寺)로 불리던 대찰이었다. 고

려 때는 절찰신앙 범회가 열렸던 곳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장도량이자 절찰도량, 참회도량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현재에는 선운사 산내 암자로, 선원과 대웅전, 약사전, 응진전, 명부전 등을 갖추고 있다.

참당암이 선원이 된 것은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의 발원 때문이었다. 스님은 백파공선·석전정호 스님 등 걸출한 선지식을 배출한 선운사가 교구본사임에도 선원이 없어 선택이 골긴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선운사에 선원을 세우고자 발원했다. 그 원이 회향된 곳이 참당암, 참당선원이다.

안거 기간 참당선원에서는 선원장 을광 스님의 지도하에 매일 오전 3시 기상해 10시간 이상씩 수행정진을 한다. 선덕 대원 스님과 주지 범만 스님 등도 수좌들과 함께 안거하며 정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선원장 을광 스님은 “최근에는 사찰 살림이 많이 좋아져 탁발 등을 안하고 좌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수행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절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진에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있지 않다. 오직 화두를 참구하고 또 참구할 뿐”이라며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공부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원의 역할이다. 참당선원의 수행가풍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수행정진 하는데 있다”고 소개했다.

을광 스님은 “산중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스님들이나 새벽에 열심히 사는 재가자분들이나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생노병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올바른 길을 가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방법뿐이다. 선지식을 통해 서만이 올바른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을광 스님은 선지식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대중처소에서 여법하게 정진한 이들이 선지식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참당선원을 비롯해 교구 내 도솔암 석상암 동운암 등에 방부를 들인 73명의 수좌스님들은 11월 10일 선운사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법회를 열고 안거기간 중 불퇴전의 응행정진을 통해 은산철벽을 뚫고 넘을 것을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 수행자 프리미엄 없애라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관해 불자들은 무관심하다. (본지 제861호 보도) 이와 관련해 5대결사 가운데서도 수행결사의 정립과 실천에 결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조동섭)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1월 7일 동국대에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회자들은 한국불교 수행 풍토와 수행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일상의 삶을 떠난 수행만을 강조하는 현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전문적 수행에만 종교적 권위를 모두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에 수행 전문가인 승려가 아니면 누구도 종단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 종교적 권위의 분산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없는 한 독점적 종교 권위의 부자유가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 전문적 수행을 통해 종단 내 권위가 생성되고, 종단의 제도와 법규마저 이런 권위와 연계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소장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종단 내 재가불자들의 위치가 좁아져 사부대중이

한국불교 위기는 불자수 감소 아닌 불교가치 사회 구현하지 못한 때문  
신도수·재정 확충은 집단이기주의  
개인별로 수행 일상에서 실천해야

참여하는 불교를 만들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종단의 사회적 영향력에도 직결돼 한국불교 전체의 위상 저하로 이어진다. 재가자와 출가자는 종단 내 역할과 기능이 달라도 동일한 불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정상적인 불교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종단 내 독자적 권위와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래야 수행 가치가 사회화 되고, 사부대중의 협력에 의해 진정한 수행결사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부장 범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진정한 위기는 “불자 인구 감소가 아닌 불교 가치를 사회 대중에게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한 탓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표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도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한다면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불교 가치의 실천과 중생의 안락과 행복에 대한 직무유기가 진정한 위기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인 스님은 “결사추진본부에서 제창하고 있는 개인에게 맞는 수행이 일상에서 실천될 때 수행결사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오에는 선원 수좌스님들의 제안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와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4시간 동안 문경 봉암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선원 교학 율원 종단행정(봉사) 수행의 대중화(대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단의 원로·중진스님들이 참여했다.

선원수좌스님들과 자문위원 스님들은 수행, 선거제도, 재정 등 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성과 쇄신 결사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인천불자들 자연유산 굴업도 개발 ‘반대’

불교 등 4대 종단 100인 선언

불교를 비롯한 인천의 4대 종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자연 유산인 굴업도 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신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굴업도개발을 우려하는 인천지역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을 11월 3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표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선언에 불교계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일초 스님, 고대영 인천제가 불자총연합회 회장 등 33인이 참여했다.

인천 4대 종단 종교인들은 “굴업도는 작지만 소중한 섬이다. 현재의 개발이 이익이 아닌 미래세대와 이웃생명, 인천 앞바다의 생명평화를 위해 인천시의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굴업도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환경훼손을 우려해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며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인천지역 4대 종

단 성직자들은 굴업도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찬반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자연환경훼손, 공동체 붕괴와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굴업도는 전문가들도 해양공원지정이 타당하다고 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다. 토지소유자, 개발업자의 개발이익만을 고려해선 결코 안 된다. 굴업도와 인천 앞바다의 지속가능하

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J그룹 계열사 씨엔아이레저산업은 인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겠다며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10월 31일 옹진군에 제출했다. 2010년 6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취하한지 1년 4개월만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아미타불 따라 떠나는 정토순례길 만들자

아미타불 48대 서원을 따라 삶을 돌아보는 웰다잉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11월 4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 ‘한국 정토신앙 관련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안’에서 본존불이 아미타불 등인 정토신행 사찰 48 곳을 선정해 템플스테이를 겸한 정토순례

길 ‘정토로 가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제안에 따르면 48사찰을 다시 4개의 권역별로 나눠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돕고, 각 사찰 방문시 (가칭) ‘극락가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게 해 성취동기 등을 높이도록 했다.

이재수 전임연구원은 “‘정토로 가는 길’은 정토신앙과 연계되는 우리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길이다”라고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 원목 온돌마루
- 강화마루
- 필름온돌
- 전기온돌